



해외업계소식

인텔, MP3플레이어 등 앞세워 국내 정보가전 시장 공략

세계 최대의 칩 생산업체인 인텔이 휴대용 MP3플레이어를 앞세워 국내 정보가전 시장에 진출한다.

인텔코리아(<http://www.intel.com/kr>)는 휴대용 MP3플레이어인 '포켓 콘서트 오디오 플레이어'와 디지털 현미경, PC용 카메라, 무선 키보드 등의 시연회를 지난 7월 24일 갖고, 이들 제품을 국내 시장에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다.

인텔은 연초 소비자용 제품 진출을 선언하고 미국에서 제품을 내놓기 시작했으며, 국내에서 소비자용 제품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중 국내에 먼저 출시될 포켓콘서트는 지난 2월 미국에서 소개돼 시판 한달만에 시장점유율 1위로 떠오른 제품이다.

개당 4백달러(약 50만원)의 비싼 값이지만 1백28MB의 대용량 플래시메모리와 인텔의 인지도 때문에 단숨에 시장을 주도하게 됐다고 인텔측은 말했다. 국내에서 판매될 포켓콘서트는 삼성전기에서 제조하게 된다.

인텔코리아는 이 제품에 이어 무선 키보드, PC 카메라 등도 연내 시판할 계획이다.

인텔의 정보가전 시장 진출은 PC시장 둔화에 따른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새로운 '인텔 아웃사이드(Intel Outside)'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인텔은 1990년대 초반 PC안에 자사의 중앙처리장치(CPU)가 장착돼 있다는 '인텔 인사이드(Intel Inside)' 마케팅 전

략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올 2분기 전세계 PC출하량이 15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칩 수요도 격감하자 새롭게 부상하는 정보가전 분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자사 칩을 내장한 디지털 정보가전 제품을 앞세운 인텔 아웃사이드 전략으로 매출액과 칩 수요를 동시에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정보가전 제품들이 펜티엄4 PC에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내세워 펜티엄4 판매도 촉진시킨다는 전략이다.

인텔코리아측은 "MP3플레이어에 이어 디지털 카메라와 같이 PC의 기능과 성능을 확장시켜줄 수 있는 제품들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며 "이 제품들은 결과적으로 인텔 칩의 수요를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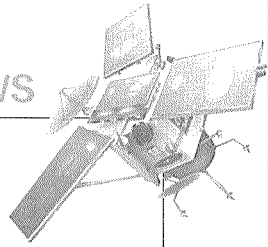
졸음운전방지 인공지능 SW 개발돼

교통사고의 최대 주범중 하나인 졸음운전을 방지해 주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개발됐다.

IBM 토머스 왓슨연구소의 드미트리 카네브스키 등 2명의 과학자가 계기판에 설치해 졸음운전을 감시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IBM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운전자의 취향과 관련된 질문을 던져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대응속도와 응답의 역량, 차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에 잡힌 운전자의 입모양을 분석해 졸음 운전여부를 파악한다.

또 이 소프트웨어는 운전자가 졸고 있다고 판단되면 계기판에서 찬물이 운전자의 얼굴에 분무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창문을 열어 찬바람을 순환시키거나 버저를 울리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운전자를 깨워준다. 이밖에 라디오 주파수를 바꿔주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



려주도록 할 수도 있다.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두 과학자들은 현재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이 소프트웨어의 적용을 위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EC 등 일본 반도체업계 '빅5' 올 설비투자액 40% 축소

일본의 주요 반도체업체들이 감산에 이어 설비투자액 삭감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NEC·후지쯔 등 5대 반도체업체 함께 2001년도 총 투자액은 약 5500억엔으로 2000년도 대비 약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르면 NEC는 연초 1440억엔으로 잡은 2001년도 반도체 투자액을 약 300억엔 줄일 방침이다. 중국 상하이 합작 공장의 증설 투자(200억엔)를 유보하고 로직(논리회로) 반도체의 증산 투자도 일부 취소할 계획이다.

후지쯔는 당초 1900억엔으로 계획했던 올 설비투자액을 1600억~1700억엔 정도로 하향조정한다. 네트워크기기 시장 위축으로 수요가 줄고 있는 화합물반도체의 증산 투자를 동결하는 한편 휴대폰용 플래시메모리의 증산도 유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미쓰비시전기도 800억엔 규모인 2001년도 반도체 투자액을 700억엔으로 줄이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 반도체업체들도 설비투자를 줄여 미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가 설비투자액을 작년비 35% 감소한 18억달러로 줄였고, 이탈리아와 프랑스 합작사인 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작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55% 감소) 15억달러로 대폭 축소했다.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들도 작년의 40% 수준으로 반도체 투자액을 줄였다.

이처럼 반도체 업체들이 설비투자 삭감에 나

서고 있는 것은 정보기술(IT) 성장을 지탱해 온 휴대폰·PC·네트워크기기 등 3대 시장의 회복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반도체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PC시장은 세계 최대 수요처인 미국의 2분기 출하가 약 2% 감소하는 등 부진을 보이고 있다.

IDC에서는 올 미국 시장 성장률을 당초의 2.2% 증가에서 6.3% 감소로 내려잡았고 세계 출하대수 증가율도 종래의 10.3%에서 5.8%로 낮췄다. 일본 시장은 2분기 출하가 작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 98년 4분기 이후 4분기 기준으로 계속돼 온 두자리수 성장 행진이 멈췄다. 특히 출하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개인용PC는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후지쯔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 수요 회복은 빨라야 올 연말이고 늦어지면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스코시스템스 KK-산요전자 인터넷 전화단말기 사업 제휴

시스코 시스템스 KK와 산요전자가 인터넷 전화 단말기 사업에 공동 진출한다.

미국 시스코 시스템스의 일본 자회사인 시스코 시스템스 KK와 산요전자가 기업용 통신시장을 겨냥한 인터넷 전화를 공동 개발·판매하기 위한 제휴를 했다.

시스코의 네트워킹 기술과 산요의 컴퓨터 하드웨어 제조기술로 개발되는 이 인터넷 전화기는 9월에 출시될 예정이고, 가격은 7만~8만엔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 인터넷 전화기는 음성통화뿐 아니라 무선 데이터 통신을 위해 NTT도코모의 i모드 서비스가 도입한 콤팩트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과 LCD 스크린이 탑재될 예정이며



해외 업계 소식

LAN으로 인터넷에 접속된다. 두 회사는 올 연말까지 1만5000대를, 내년에는 15만대를 판매할 예정이다.

NEC-TSMC, 0.10미크론 칩 개발 제휴

NEC가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업체 대만의 TSMC와 손잡고 0.10미크론칩을 상용화하기로 했다. NEC는 TSMC와 오는 2003년 1분기까지 0.10미크론 칩을 개발해 슈퍼컴퓨터, 3세대 이동전화 단말기, 디지털 가전 등에 적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 NEC측은 TSMC와 디지털 가전 및 다른 대량공정 제품을 위한 LSI칩에 사용되는 표준 또는 고속 트랜지스터 설계만 공동으로 하고 슈퍼컴퓨터나 정교한 게임 그래픽을 위한 초고속 트랜지스터와 3세대 이동전화 단말기와 같은 휴대장비용 저전력 트랜지스터 등의 고부가 품목 개발은 독자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NEC의 장비개발 담당 총 매니저 구도 오사무는 일본업체들이 한국업체들과 회로선폭 0.07~0.05미크론 기술개발을 위한 산업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계획대로 0.10미크론 칩을 개발하기만 하면 NEC가 전세계적으로 일류 그룹에 속하게 될 것”이라며 “TSMC 이외의 다른 기업과 동맹을 맺을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동영상 편집 SW 개발

디지털캠코더로 촬영한 동영상으로부터 사람이나 동물 등의 특정 피사체를 간단히 오려내

홈페이지 등에 올릴 수 있는 기술(소프트웨어)을 일본 도시바가 개발했다.

도시바는 ‘오브젝트(대상물) 추적’으로 불리는 기술을 사용해 한번 윤곽을 지정하면 어떤 배경에서도 움직임이 있는 피사체를 가려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동영상 가공을 전문가 이외로 확산시키는 기술’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동영상을 오려내기 위해선 ▲단색 배경하에서 피사체를 촬영해 오려내기 쉽게 하거나 ▲영상을 1프레임씩 멈춰 윤곽을 지정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바가 이번에 개발한 소프트웨어 ‘마스크마스터’는 동영상을 일단 정지시키고 피사체의 윤곽을 덧그리는 방법으로 동작상태를 지정해 오려낸다. 다른 영상을 합성하면 예컨대 다양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이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

도시바는 곧 자사 연구개발센터 홈페이지(<http://www2.toshiba.co.jp/mmlab>)에 시험적으로 공개해 이용자의 의견을 모아 연내 상품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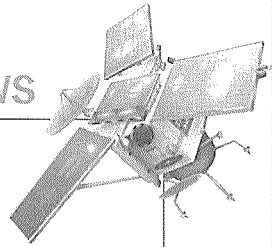
세계 PC판매 15년만에 첫 감소

PC판매가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둔화로 15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20일 시장조사회사 가트너(<http://www.gartner.com>)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인 PC판매가 올 2분기에 3040만대를 기록해 전년 동기(3100만대) 대비 1.9% 줄어 들었다.

이처럼 PC판매 절대량이 줄어든 것은 지난 8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가트너는 설명했다.

또 다른 시장조사회사인 IDC의 조사에 따라



면 올해 2분기 미국시장에서의 PC판매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1%정도 급감했으며, 지난 1분기에도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PC판매 감소는 최근 PC산업이 겪고 있는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월가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가트너의 애널리스트 마틴 레이놀스는 "(PC 판매가)올 3분기부터 다소 회복돼 4분기에는 활황을 되찾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회복신호가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회복을 확신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양방향TV 제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전세계에 걸쳐 미디어 왕국을 건설한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프와 양방향TV 사업에서 제휴했다.

MS는 자사의 양방향TV 서비스인 '얼티메이트TV'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루퍼트 머독이 소유하고 있는 뉴스코프의 국제 위성망인 스카이글로벌네트웍스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스카이글로벌네트웍스는 영국 브리티시스카이브로드캐스팅(B스카이B)과 홍콩 스타TV, 그리고 인도 아이스카이비와 오스트리아 폭스텔 등의 굵직굵직한 위성방송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으며 시청자도 전세계 53개국에 걸쳐 3억명이나 돼 양사의 영향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MS는 뉴스코프와의 협력 사실을 전자우편을 통해 직원들에게 알리며 "앞으로 수년간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얼티메이트TV의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세계미디어(콘텐츠) 시장 장악을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내비쳤다. 앞서 MS는 지난 6월초 포르투갈

에서 양방향TV 서비스를 처음으로 실시하며 유럽의 양방향TV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다.

현재 MS는 얼티메이트TV 서비스를 휴일렉트로닉스의 계열사인 디렉TV만을 통해 제공 중이다. 이 서비스는 전자우편, 웹서핑과 같은 양방향 서비스는 물론이고 TV 시청중에 다른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디지털비디오리코딩 기능을 가지고 있다.

양방향TV 시장은 아직 초창기인데 시장전문가들은 다섯달 전에 실시된 MS의 얼티메이트TV 서비스 가입자가 미국에서만 3만 가구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MS 부사장 팀 버처는 얼티메이트TV 가입자 수의 공개를 거부하며 "가입자 확보가 현재까지 만족할 수준이며 특히 일반 소비자가 광대역망을 이용하게 된 최근 3개월간은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MS와 뉴스코프의 이번 제휴는 스카이글로벌 산하의 B스카이B 측이 이미 MS의 경쟁업체인 오픈TV와 서비스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IBM "하반기 성장 둔화"

세계 최대 컴퓨터 업체 IBM은 지난 7월 18일 2분기 실적이 월가의 예상치를 달성했으나, PC·칩·하드드라이브 사업의 부진과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하반기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IBM의 2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동기 19억달러(주당 1.06달러)보다 다소 늘어난 20억달러(주당 1.15달러)를 나타냈다. 반면 매출은 216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217억달러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해외 업계 소식

IBM의 루 거스너 CEO는 자사의 PC사업 및 하드드라이브 사업의 부진이 지속적으로 이어 지자 “이제 IBM의 소형전자기기 사업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달러화의 강세로 IBM의 올 하반기 순이익은 주당 14센트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IBM의 존 조이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환율로 인해 올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영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IBM은 올 들어 영업실적이 크게 줄어든 선마이크로시스템스, 홀렛팩커드, 컴팩컴퓨터 등 경쟁업체들과는 달리 사업에 호조를 보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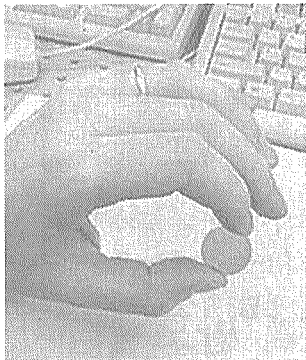
이는 IBM의 아웃소싱 및 컨설팅 서비스를 포함한 IT서비스 사업에 집중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리 이용한 홀로그래프 저장장치 개발

요즘 저장 공간은 너무 좁다. 10년치의 영수증, 각종 세금 기록 등을 냉장고에서 만든 각빙보다 작은 공간에 집어넣을 수 있다면 누구나 기뻐할 것이다.

병원, 보험회사, 은행, 백화점도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압축시켜주는 저장장치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캐나다와 스페인의 두 연구원이 것처럼 작은 공간에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매체를 발명했다.

유리 모양의 이 새 매체는 자기



기억장치가 아니라 홀로그래프 기억장치다. 홀로그래피는 신용카드와 CD 패키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D 이미지 뿐 아니라 0과 1의 디지털 데이터도 저장하는 광학 프로세서다. 1인치 두께의 소재에 수많은 페이지를 저장할 수 있다.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홀로그래피의 이점은 수십년 동안 알려져왔지만, 홀로그래프 저장장치를 생산한 업체는 아직 없다.

애리조나대학 옵티컬 데이터 스토리지 센터의 글렌 신서박스 소장은 “우수한 저장 소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 소재는 최초로 홀로그래프 판독 전용 기억장치가 될 가능성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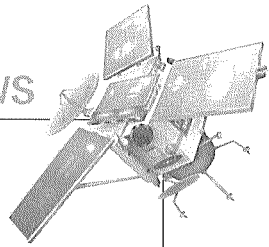
작은 구멍이 그득한 유리 매트릭스인 새 매체는 마드리드의 콤폴루텐세대학 광학과 과장인 마리아 루이사 칼보 박사와 캐나다의 오타와에 있는 포토닉스 회사인 옵테미아의 파벨 세벤 박사가 발명한 것이다.

두 발명가는 유리를 만드는 구식 방법인 ‘졸-겔 방식’을 응용해 이 소재를 만들었다. 즉 고온에서 모래를 녹인 뒤 냉각시키는 방식으로 유리를 만들지 않고, 실내 온도에서 액체의 전구 물질을 유리에 섞어 만들었다.

세벤 박사는 이 방법으로 홀로그래피에 필수적인 감광성 화학 물질을 첨가할 수 있었다면서 “유리를 녹여 굳힌 잉곳(ingot)은 단단해 보이지만 작은 구멍이 많다. 이 구멍들에는 우리가 첨가한 액체 아크릴과 광화학적 개시제가 가득 들어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실험에서 유리화 감광성 화학 물질을 혼합해 약병에 넣은 뒤 열흘간 건조했다. 그 후 이 소재를 연마한 다음 홀로그래프 처리과정을 거쳤다.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실험에서는 1~2cm의 디스크로 만들었다”고 세벤 박사는 말했다.



홀로그래프 저장장치 실험에서는 빛과 어두운 줄무늬로 이루어진 단순한 간섭 무늬를 유리 속의 감광성 물질에 기록했다. 이 유리를 기반으로 한 물질은 일단 각인된 정보를 1년 동안 완벽하게 간직했다.

저장 시스템의 근간인 유리는 현재 홀로그래프 저장매체를 위해 개발 중인 플라스틱 폴리머 매트릭스보다 이점을 갖고 있다. 플라스틱 소재는 정보처리 과정에서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새 유리 구조는 딱딱한 상태를 끝까지 유지한다.

폴리머 매트릭스의 문제점은 얇아지는 것이지만 새 소재의 축소는 1%도 안된다고 신서박스 소장은 말했다. 유리 소재는 두꺼운 판으로 제작되는데, 홀로그래프 소재가 두꺼울수록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다. 두께는 0.5mm에서 5mm까지 다양하다.

퀄컴CDMA사업부, 쟈플러스와 제휴

퀄컴CDMA기술사업부(대표 돈 슈락)는 스마트폰업계의 선도주자인 쟈플러스와 착탈식 사용자 확인 모듈(R-UIM) 솔루션 공급을 위해 협력할 것을 지난 7월 31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퀄컴과 쟈플러스는 cdmaOne 및 cdma2000 1x 단말기 제조사가 완벽하게 R-UIM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급하게 된다. 이 솔루션은 쟈플러스의 '쟈스플로 월드' 제품을 이용해 디자인된다. 퀄컴의 루이스 피네다 부사장은 "이번 협력으로 보다 많은 이동단말기 제조사가 R-UIM용 단말기를 본격적으로 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아시아처럼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및 유럽형이동전화(GSM) 망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의 사업자들은 R-UIM용 단말기로 고객들에

게 보다 편리한 로밍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IT, 창고관리용 무선 태그 기술 개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요 창고관리 기술인 바코드보다도 훨씬 정교하게 데이터 추적이 가능한 무선 태그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MIT 오토-ID센터의 연구자들은 오는 10월부터 오클라호마 톨사에 위치한 소매 창고를 대상으로 무선 태그 기술의 현장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MIT 연구팀은 자동차용 무선 지불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무선 태그를 지게차용 상품 팔레트에 부착하고 창고 선반 위에는 태그 판독기를 설치해 팔레트의 도착 및 출발 등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소매와 제조 본부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이번 실험이 성공하면 내년 4월까지 개별 켄이나 박스를 추적하는 추가 실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MIT 연구팀은 새로운 무선 태그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있으며 태그의 단가를 개당 수 센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바코드는 개별 제품이 아니라 제품의 유형별로만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무선 태그 실험이 성공하면 재고관리 분야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보스턴대의 경제학 교수인 데이비드 웨일은 "바코드가 매년 수십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해주지만 무선 대체기술은 여기에서 또 다시 수십억을 절감해줄 것"이라며 "절도, 공급 과잉, 품질 등의 발생 빈도를 줄여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